



JENESYS2019 일한문화교류기금 한국대학생방일단(제3단) 참가자 모집 안내

일한문화교류기금은 일본 외무성이 실시하는 사업인 "아시아태평양지역과의 청소년교류 (JENESYS2019)"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일본을 방문할 한국 대학생을 모집합니다.

1. 일본 방문의 목적

- 일본을 방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직접 배우고, 일본의 다양한 매력을 발견한다.
- 일본 청소년과의 교류와 품스테이를 통해 일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한다.
- 방일 중 및 귀국 후에는 보고 느낀 일본의 매력을 온라인(SNS 등)·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한국 내에서 알리며 일본에 대한 이해 향상에 기여한다.

2. 응모 자격

- ① 대학생 (만 30세 미만).
 - ② 일한문화교류기금, 일본정부 및 관계기관의 초청에 의한 일본 방문 경력이 없는 자.
 - ③ 원칙적으로 대상자는 한국 국적을 소유하고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여야 하며, 일본에서의 체류일수가 총 3개월(92일) 이하(취학 전의 일본 체류 이력도 포함)인 자.
 - ④ 외무성이 실시하는 청소년교류사업의 취지와 프로그램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절차와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의지를 가진 자.
- * 주최 측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한 개인적 이유로 프로그램 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개인부담 비용이 발생합니다.
- 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활발한 SNS 활동을 하고 있는 자.

3. 방일 일정 및 기간

도쿄도, 미야기현, 사이타마현, 이바라기현 등 9박 10일(예정).

4. 선발 일정

① 인터넷 접수 및 서류 접수

- 2019년 11월 11일(월) ~ 12월 23일(월) *등기우편: 12월 20일(금) 소인까지 유효.

② 합격자 발표

- 2020년 1월 9일(목)까지

일한문화교류기금 홈페이지(<http://www.jkcf.or.jp/>)와 일한문화교류기금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www.jkcf.or.jp/>)에 접수번호를 게재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5. 응모 방법

- 인터넷 접수 후 에세이와 재학증명서 원본을 함께 제출할 것.
- 추천서 제출이 가능하는 자는 에세이, 재학증명서 원본과 함께 제출할 것(필수 아님).
* 제출한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일한문화교류기금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한문화교류기금 홈페이지) <http://www.jkcf.or.jp/>

(일한문화교류기금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www.jkcf.or.jp/>

문의: 방일단 담당 exchange-programme2019@jkcf.or.jp

일한문화교류기금 사업안내

일한문화교류기금은 일한의원연맹 및 경제단체연합회의 주도에 의해 1983년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35년 이상, 외무성에서 받은 위탁사업을 비롯해서 ‘일한 양국 국민간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문화 교류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생각에 근거하여 각종 교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위: 일한 문화·인적 교류 추진을 위한 전문가 회의가 고노 타로(河野太郎) 전 외무대신에게 ‘제언’ 제출.

1. 청소년 교류



1988년의 일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확대되어 지금까지 4만명을 넘는 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일본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주한일본대사관, 주부산·제주 총영사관, 한국측으로부터는 국립국제교육원 등의 협력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펠로십



일한 양국의 젊은 세대·중견 세대의 연구자, 오피니언리더를 초빙·파견하여 현지에서 연구·조사 등의 활동을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기금의 펠로십을 이용하여 연구 활동을 한 연구자는 800명이 넘습니다.

3. 회의



일한 양국의 인문 사회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에서는 ‘일한문화교류회의’, ‘일한역사가회의’, ‘일한역사공동연구위원회’, ‘일한신시대공동연구프로젝트’, ‘일한 문화·인적 교류 추진을 위한 전문가 회의’ 등의 사무국을 맡아 왔습니다.

4. 조성



일한 양국간에는 자치단체와 학교, NPO 단체 등에 의한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류가 더욱 확대되도록 이들 교류 활동을 조성이라는 형태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